



베트남 작가 구엔 민 탄의 '난 아무도 믿지 않아'.



이한수 씨의 '천개의 눈을 가진 선녀'.



김야타의 프록젝트 중 '미륵반 가사유상'.

관객·작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제5회 광주 비엔날레 (11월 13일 까지)

지율 스님·고은 시인·문규현 신부 등 참여관객 작품도

무엇보다 이 전시관에서 불자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모임'의 '광주천의 숨소리'이다. 이 작품은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관객으로 동참해 주목을 받아온 작품이다. 140만 광주시민의 하수 슬러지를 물고기로 형상화 한 설치작품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들의 사진으로 벽면을 장식한 이 작품에서 지율 스님과 작가들은 광주천과 천성산이 되살아나기를 기원하고 있다.

주제관에서 또 하나 주목할만한 작품으로는 5전시실에 전시된 황호섭 씨의 '108-1'이다. 108개의 부처님상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면에 다양한 필름의 영상물을 볼 수 있다. 인공적인 대량생산에 대한 작가의 문화비평이란다. 아쉽게도 장소가 협소해 작품 전체를 전시하지 못하고 일부만 보여주고 있다.

중외공인 교육홍보관에서 열리는 '한국특급' 전에는 국내작가 29명이 참가하고 있다. 1전시실에는 설치작가 이한수 씨의 '천개의 눈을 가진 선녀'가 종교적 신비함을 보여준다. 천녀상의 몸에서 나오는 레이저는 '천수천안(千手千眼)'을 의미하는 천개의 눈에서 차용한 것으로 미래지향적 문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전시실은 정면에 자리한 미륵반가사유상이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은은히 울리는 <천수경> 독경소리를 따라가면 김야타 씨의 영상물을 만난다. 8개의 사천왕 이미지를 합성한 사천왕과 다양한 영상물이 선보인다.

한국특급전에서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3전시실에 설치된 강익중 씨의 '삼라만상 2004'이다. 수백개의 불상 그림을 바탕삼아 온갖 잡동사니를 붙여놓은 이 작품은 화려한 무덤의 굵거리를 형상화하면서 사바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 비엔날레는 거대한 사바세계를 소꿉장난하듯 여기저기 펼쳐놓은 듯 하다. 유난히 불교적 소재의 작품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은 환경과 문명, 전쟁, 갈등 등 현 세상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불교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인 듯 하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www.gwangju-biennale.org (062)608-4114

광주=이준엽 기자



지율 스님이 기획단계부터 참여한 '광주천의 숨소리'.



문규현 신부 등이 참여관객으로 동참한 '부안 사람들의 기원'.



황호섭의 '108-1'.

오승윤의 '바람과 물의 역사'.



인터뷰 재미설치미술가 강익중 씨



지구상의 모든 전쟁과 분쟁이 사라질 때 '꿈의 달'도 하늘로 비상할 것입니다.

'3x3인치(7.6cm)의 작은 그림'으로 유명한 재미 설치작가 강익중 씨(44·사진)가 전 세계 어린이 그림 12만 5천장을 모아 아일산 호수공원 위에 '꿈의 달'을 띄웠다.

'세계문화올림픽2004' 행사에 맞춰 9월 13일 모습을 드러낸 이 달은 나흘간 호수 위에 등등 떠 있게 된다. 지름 15m의 대형 에드벌론의 표면을 아이들의 그림으로 도배한 이 달은 줄을 이용해 고정시키고 조명으로 달의 밝음을 표현하고 있다.

강씨의 가슴속에는 항상 어린 시절 보았던 달을 띄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급기야 1999년부터 이런 생각을 실행에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우선 플라주된 그림들을 각종 단체, 병원, 학교 등에 수소문해 모았다. 이것들은 총 141개국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비엔날레서 '삼라만상 2004' 선행 일산 호수공원 위에 '꿈의 달' 설치 '제2의 백남준'으로 세계적인 명성

또한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유희로 그린 부처 3천 349개를 3.4m 높이로 쌓아올린 '삼라만상 2004'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자연스런 감정의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의 조각들을 캔버스 위에 하나씩 옮겨 놓는 것이 내 작업 스타일입니다. 그러다보면 그 안에서 하나의 질서를 깨닫게 되고 그림과 내가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일체의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강씨가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97년 '영어를 배우는 부처'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오페라를 부르시는 부처',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등이 있다.

99년에는 광주 통일동산에서 설치작품 '실만의 꿈'을, 2001년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놀라운 세상'을 선보여 세계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 강씨가 세계미술계의 이목을 집중 시킨 계기는 94년 휘트니미술관에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씨와 '멀티플 다이얼로그'전을 열면서 부터다.

이 자리에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은 그의 작품을 보고 '비밀법의 미학'을 제대로 펼쳐보인 유년성인은 작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서대문 흥국생명 빌딩 1층 로비에 '즐거운 세상'을,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는 '금수강산'을 주제로 한 대작을 벽에 걸어 놓았다. 그는 앞으로 임진강에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꿈의 다리'를 실현 시킬 계획이다.

한편 60년 청주 출생인 강씨는 홍익대 서양화과와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를 졸업하고 현재 뉴욕에서 작업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육법등 (六法燈)



의장등록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정엄된 육법등

- | | |
|---|---|
| <p>특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p>활용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세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
|---|---|

(주)동원전기 주소: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031)541-1417 / 팩스: 031)541-1419 **충만 및 대리점 모집**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출고정가 1Set-12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 (74.8% 할인)**

단! **"500분" 깨만!** 기획을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儒·仙·華嚴 특강 (CD18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매처: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 주소: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